

## 간호사 전용 열린콜센터 '넬스톡' 운영

### 간협, 회원고충상담 - 면허신고 - 일반상담 등 통합안내

간호사 전용 열린콜센터

넬스톡 (NurseTalk) 1588-6282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전용 열린콜센터인 '넬스톡'(Nurse Talk, 상담전화 1588-6282)을 통해 통합 안내 및 상담 서비스를 9월 3일부터 시작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회원고충상담, 면허신고상담, 일반상담 등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한 열린콜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열린콜센터 '넬스톡'에 전화를 한 후 상담이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면 상담직원이 연결돼 안내해준다. 상담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다.

회원고충상담에서는 간호현장

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고충에 관한 사항, 의료사고 및 분쟁, 간호업무 관련 법률문제, 임금·근로조건·모성보호 등 노무에 관한 사항 등을 상담해준다.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간호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법률·노무 무료상담' 서비스를 통해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면허신고상담에서는 간호사 면허신고 절차 및 방법,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상담해준다.

일반상담에서는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보수교육 결제요류 및 동영상 문제에 대해 상담해준다. 대한간호협회 회원

등록, 회원복지, 간호사신문 구독, 넬스라이프 상품구매·배송·반품·취소 등에 대해 상담해준다.

그동안 간호사들은 상담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직접 대한간호협회 담당부서에 전화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에 열린콜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전절하고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충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열린콜센터 운영에 앞서 지난 7월 명칭 공모전을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우수자를 선정해 시상했다. 공모전을 통해 간호사 전용 열린콜센터 명칭을 '넬스톡'으로 확정했다. '넬스톡'은 '간호사들이 말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 올해 전문간호사 11개 분야 400명 배출

2018년 제15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통해 11개 분야에서 400명의 전문간호사가 배출됐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원장 김희순)은 제15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를 9월 7일 발표했다.

합격자 명단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홈페이지(www.kabone.or.kr)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개별 통보했다.

전문간호사 분야별 최종 합격자 수는 다음과 같다.

△가정 = 21명 △감염관리 = 33명 △노인 = 111명 △산업 = 10명 △아동 = 10명 △응급 = 15명 △임상 = 30명 △정신 = 33명 △종양 = 63명 △중환자 = 34명 △호스피스 = 40명.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시행했다.

1차 시험은 7월 22일 치러졌으며, 446명이 응시해 412명(92.4%)이 합격했다.

2차 시험은 8월 19일 치러졌으며, 419명이 응시해 400명(95.5%)이 합격했다. 2차 시험 합격자 가운데 올해 2차 시험에 재응시한 인원이 포함됐다.

이번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대학원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들이다.

올해 합격자 400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자격시험(2005년 첫 시

행)을 거쳐 배출된 전문간호사는 총 7232명이며, 분야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 = 1147명 △감염관리 = 367명 △노인 = 2288명 △마취 = 70명 △보건 = 4명 △산업 = 154명 △아동 = 99명 △응급 = 302명 △임상 = 280명 △정신 = 404명 △종양 = 870명 △중환자 = 692명 △호스피스 = 555명.

자격시험 시행 이전 전문간호사 취득자 8164명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전체 전문간호사 수는 1만5396명이다.

한편 우리나라 전문간호사제도 는 2000년 1월 의료법의 4개 분야별 간호사(보건, 마취, 정신, 가정) 명칭이 전문간호사로 개정되면서 첫 발을 내디뎠다.

이어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전문간호사가 신설됐다. 현재 전문간호사 자격분야는 모두 13개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이어 3월 27일자로 공포됐다.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0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전문간호사 관련 의료법에서는 '제78조 전문간호사' 조항에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으며, 기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있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을 상위법인의 의료법으로 옮겨 명시했다.

정규숙·최수정 기자



간호조직체계·문화혁신  
배지 달기 캠페인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에 청주푸른병원 간호부(간호부장 박경남)에서 참여했다. 가정의학과 박영조 병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에 광주광역시 보라안과병원 간호부(간호부장 서미라)에서 참여했다.

## '간호대상' 수상 후보 추천 안내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대상 수상 후보를 다음과 같이 추천받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분	지원 자격
간호대상	간호사로서 경성을 간호사업에 헌신함으로써 우리나라 간호사업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탁월한 업적을 쌓은 자

### ■ 제출서류

- 1) 추천서 ..... 1부
- 2)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 ..... 1부
- 3) 이력서(개별양식 사용, 사진은 파일 송부) ..... 1부
- 4) 기타 공적사실 입증자료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1), 2) 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각 시·도간호사회를 통하여 접수

■ 지원기간: 2018년 10월 4일(목),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발표: 2018년 10월 중순 예정(개별 공지)

■ 시상: 2018년 11월 1일 '2018 간호정책선포식'에서 시상

##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

### 보험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

9월부터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확대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에 14개 기관(가정형 8곳, 자문형 6곳)을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가정형 33곳, 자문형 25곳으로 확대됐다.

이번 시범기관 확대로 제주(가정

형, 제주대병원), 전남(자문형, 화순전남대병원) 등의 지역에서도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집으로 방문해 지속적인 돌봄 상담 등을 제공하는 '가정형 호스피스'는 2016년 3월 이후 25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이번에 서울 2개 및 경기, 대전, 강원, 전북, 경남, 제주지역에 각 1개 기관씩 총 8개 기관이 추가돼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일반 병동 또는 외래에서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호스피스팀의 돌봄 상담 등을 받는 '자문형 호스피스'는 2017년 8월 이후 1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번에 서울, 경기지역에 각 2개 및 전남, 경남지역에 각 1개 기관씩 총 6개 기관이 추가됐다.

지영건 심평원 급여기준실장은 "말기환자의 존엄하고 편안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호스피스 사업의 활성화와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시범기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2017년 8월 4일 제정 시행된 이후 입원형 위주의 호스피스 제공모형을 다양화하기 위해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으로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와

가족에게 통증 등 힘든 증상을 치료하고 편안한 임종을 위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말기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를 개편하고,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 중이다. 올해는 공모절차를 거쳐 14개 신규 기관을 추가 선정할 것이다.

주혜진 기자 hjoo@



## 프랑스 최초의 BB크림 누가 만들었을까?

뷰티 본고장 프랑스에서 최고의 인기를 끈 에르보리앙 BB·CC 크림을 '한국콜마'가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구요? 그럴 수밖에요. 화장품 제조사는 당신의 눈에 띄지 않는 화장품 뒷면에 있으니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화장품을 연구 제조하는 글로벌 NO.1 화장품 제조사 '한국콜마'입니다.

제조사를 확인하세요!  
화장품 품질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좋은 화장품 고르는 방법  
제조사를 확인하세요!  
CGMP 1호·2호 한국콜마  
(우수화장품 제조 및 유통관리 기업)